

출하우(牛)의 월령별 도체특성 및 수익성 분석을 통한 최적의 출하시기 제공

서울지원 과장 박승필

현황

한우 산업은 반복되는 한우 수급 불안 현상으로 인한 가격 불안정으로 농가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산신국과 달리 높은 생산비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낮아 농가들이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한우 사육농가는 경험적 출하에 의존하다 보니 개체별 사육비용과 출하 수익에 대한 관계를 파악하지 못해 출하 시기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비효율적인 연장 사육으로 사육비용이 상승하며 한우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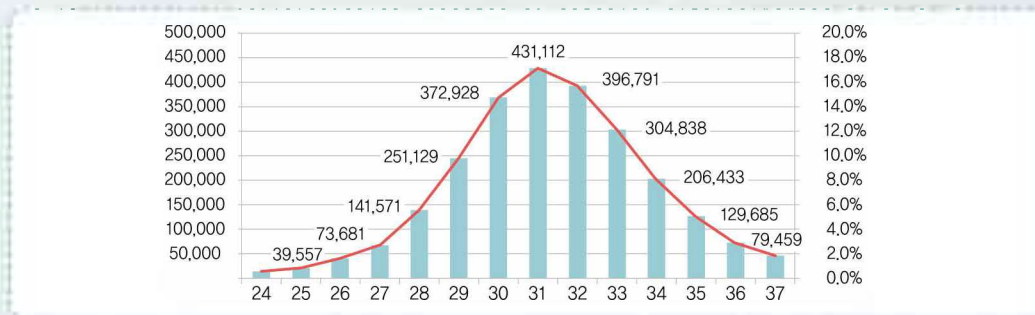
분석내용 (기간: 2010.1~2016.10, 한우(거세), 개월령: 24~37)

한우(거세) 출하 월령별 등급판정결과 분석으로 농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2010년 1월~2016년 10월 사이에 출하된 23~37개월령의 한우 거세를 살펴보았다. 월령별 출하두수 분포와 출하우 도체특성 분석으로 최적의 출하 시기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우(거세) 출하 월령별 도체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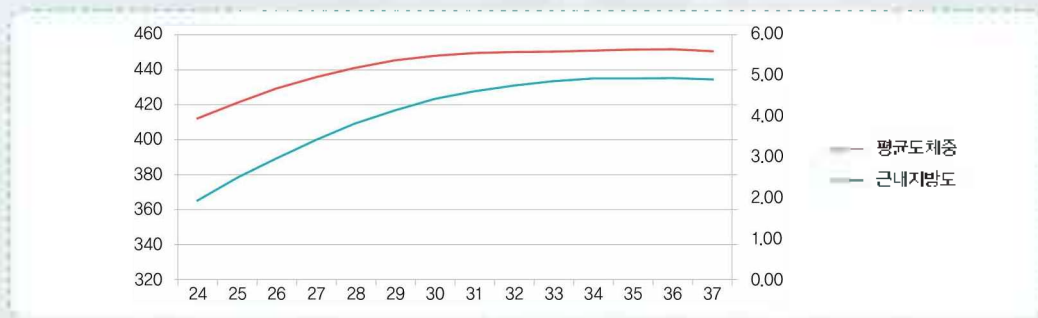
조사 기간 한우(거세) 출하두수는 총 251만 2,232두였다. 이 중 30~32개월령의 출하비중이 47.8%로 가장 높았으며, 33개월령 이후 출하비중도 30.6%나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균적으로는 31개월령 이상의 출하두수가 63.6%로 많아 연장 사육에 따른 생산비 증가가 예상된다.

[출하두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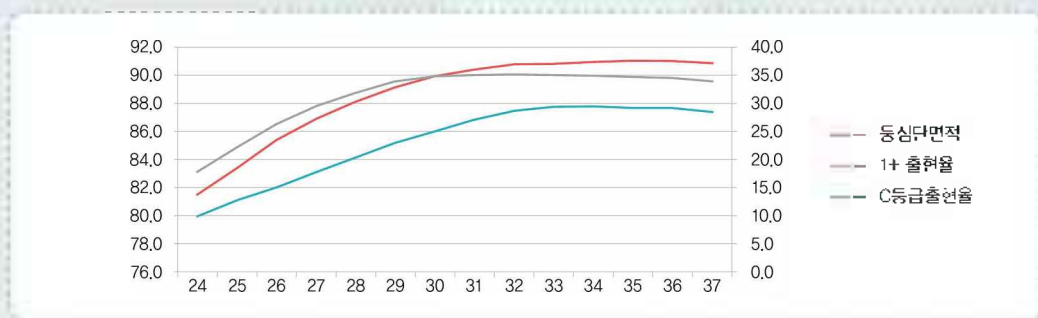


등급판정 주요항목인 도체중, 등심단면적, 근내지방도는 29~30개월령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그 증가폭이 크게 둔화하거나 유지·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판정결과 1+등급 출현율은 29개월령까지 매우 증가하다가 32개월령 이후 감소했지만, C등급 출현율은 출하 월령이 높아질수록 지속해서 증가했다. 농가수취가격의 기준으로 본 경매단가 또한 지속해서 상승하나 30개월령 이후 변동이 거의 없고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도 발생함을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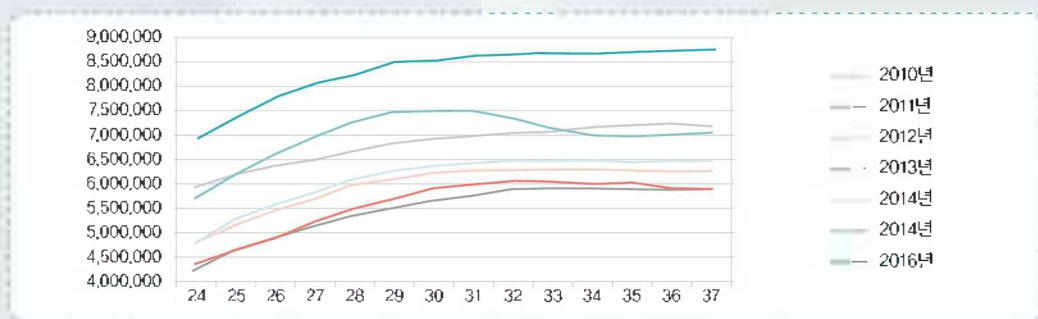
[도체중, 근내지방도]



[(1+, C)등급출현율, 등심단면적]



[출하개월령별 (추정)소득 비교]



출하우(牛) 수취가격(2016년, 도체중×경매단가)은 24개월령 695만 6,000원부터 27개월 115%, 29개월 121%, 30개월 122%, 32개월 124%, 34개월 124% 기록. 30개월령 이후부터는 증가율이 급격히 떨어짐

출하 월령을 기준으로 본 농가수익 분석 결과

한우(거세) 출하 월령별 도체 특성과 농가수익성 분석 결과 28~30개월령에 출하시기를 맞추는 것이 농가소득 최대 수익구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직장 출하 월령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며, 장기비육(연장사육) 시 수입 증가보다는 생산비 상승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하여 농가소득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한우(거세) 농가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체별 생산 비용과 출하우의 개별 성적(농가수취가격) 예측이 필요하며, 개체별 출하 시기 예측을 위하여 한우 유전능력과 초음파 측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최적의 출하 시기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한우(거세) 생산농가는 종합적인 농장 맞춤형 사양 관리 방법을 찾아야 하며,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복표 등급 설정과 사료비 절감 방안 및 생산성 증대 방안 마련, 출하우의 경락단가 및 도체특성 분석을 통하여 농장에 맞는 최적의 출하시기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시사점

분석내용을 정리하자면, 경락단가에 많은 영향을 미쳐 농가소득 증가 요인이 되는 근내지방도, 등심단면적, 등지방두께, 도체중 등은 29~30개월령을 정점으로 그 이상이 돼도 더는 늘어나지 않았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경매단가는 29~30개월령을 정점으로 유지하거나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반대로 월령이 높아지면서 지속해서 증가하는 C등급 출현율은 30개월령에서 A등급과 C등급 출현율의 역전 현상까지 보였다. 그리고 이렇듯 월령과 비례해 증가하는 C등급 출현율은 체중 증가 효율성 하락과 더불어 실질적인 사료에너지 효율의 저하로 생산성 저하와 농가수취가격 하락을 야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우 생산비 대비 농가수취가격비교]

(단위: 천원 기준: 2015년, 한우, 거세)

구분	24개월	26	28	30	32	34	36
생산비	6,004	6,450	6,764	6,979	7,110	7,189	7,153
농가수취가격	5,727	6,654	7,293	7,495	7,307	7,110	7,000
(추정)실질농가소득	-276	203	529	515	197	-200	-134

(통계청 자료) 한우 비육우 100kg당 생산비 94만 3,000원, 사료비 39만 7,000원

- 적정 출하 월령(28~30개월) 이후 육질 등급 정체, 도체중 증가율이 떨어지고,
 높은 C등급 출현율의 유지로 소득은 28~30개월령을 정점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 생산비 대비 농가수취가격 저하
 - ▶ 출하 월령 28~30개월에서 (추정)실질농가소득은 최대

결론

사양관리, 생산비, 등급결과분석, 월령별 경락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비추어 볼 때 31개월 이상 장기사육은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농장의 출하 성과와 한우 생산비용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체계적인 생우(牛) 초음파 측정으로 출하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출하 월령이 너무 증가하면 사료비용이 늘고 자본 회전율이 낮아져 농가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경쟁력도 약화할 수 있으므로 출하 월령을 단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